

附記

一、慶州古蹟要覽(昭和十一年五月調)金石條에 名稱 文武王陵碑

所在 總督府博物館藏

備考 四天王寺境內에 龜趺가 있고 碑身斷片大正四秋發見

二、朝鮮金石總覽上卷二七頁 四天王寺址에서 □遠雅志□□蘭而□□□

以上에서 (一)의 碑片의 文字가 (二)에 記錄한 것일지 或은 別個 것일지 尙으로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 곳에 添言된 것은 圖面一에 보 다시 龜趺碑座側이 缺失한 것과 古蹟圖譜四卷四七三頁 下寫眞에 龜趺의 碑座西側이 缺損된 것이 同一한 四天王寺址前方東側의 龜趺이며 이 龜趺附近에서 發見된 諸鹿央雄氏藏 碑片(全圖譜四七三頁上段寫眞 朝鮮金石總覽上卷二七頁碑文 參照)이 文武王陵 斷碑註③의 字劃. 字形. 井間과 相異한 點에서 이 碑片은 上述한 바 文武王陵碑의 推定 龜趺(西側)와 是 何等의 關聯性이 없다고 斷言하고 싶다. 그리하여 上記한 金石總覽所藏의 「遠雅志」□蘭而□等은 金石總覽에 記載된 題目 그대로 四天王寺碑文의 一部인을 알게 되며 慶州博物館에 所藏된 解放後 發見 螭首 또한 이 碑片과 一脈相通함을 알겠다.

註

① 大坂氏發見碑片裏面에는 다음과 같이 墨書된 三行의 記錄이 있다 「四天王寺址」文武王碑片」六·一一)

② 解放後 四天王寺址附近民家에서 發見된 碑螭首破片은 (徐洙龍氏로부터 大邱搬出直前에) 慶博에 搬入한 것은 一九六〇年五月一〇日 이라 한다. 本亦 螭首는 太宗武烈王碑螭首와 같이 碑上部頂點을 中心에서 左右에 各三頭龍을 肉刻하였는 듯하다. 殘存 螭首는 1/3이 (碑幅으로) 남아있고 三頭龍에서 一頭가 完全脫落하였다. 높이 龍頭上下) 七二·五C 幅(龍頭部)三八C (龍頂部)二八C 厚(龍頭殘部)一六C (龍頂部)二八C

③ 文武王陵斷碑文字는 劃이 가늘고 字形이 上下로 길고 井間이 三cm인데 四天王寺碑片은 劃이 굵고 字形이 正方에 가까울고 井間이 四方三·五cm이다(圖譜에서)

百濟石製小像斷片(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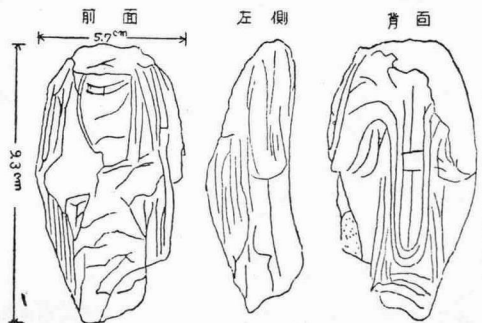
黃 壽 永

(3) 蠟石菩薩立像(圖面1)片……一九四七年十二月九日 扶餘邑舊衙里 遞局址에서 拾得된 高九·三cm에 不過한 小像。로서 頭部와 下端部가 없으며 兩手 또한 缺失되였다. 灰白色을 보이는 軟質石材를 使用하였는 데 刀痕이 刻明하며 當代의 樣式을 보이고 있다. 兩肩에 걸쳐서 垂下된 天衣는 身側을 따라 褶皺을 나타냈고 兩肩위에는 冠帶가 느리워졌다. 목에는 둥근 頸飾이 있고 胸部에는 掩腋衣가 表示되어 있다. 背面은 더욱 保存이 良好하며 裳帶가 허리를 두르고 그 左右로는 屈曲된 兩腕이 있으며 天衣는 길게 V字形으로 垂下되어 있는 것도 注目되였다. 이 같은 類例로서는 일찍기 扶餘 東南里寺址에서도 出土된 바 있으며(昭和一三古蹟 調查報告書·陳列品圖鑑一四輯) 또

日本에 傳來하는 金銅菩薩像(辛亥 銘菩薩立像——小林剛·御物金銅佛像等을 指摘할 수 있어 비록 破片이나 貴重한 資料가 될만하다(扶餘博物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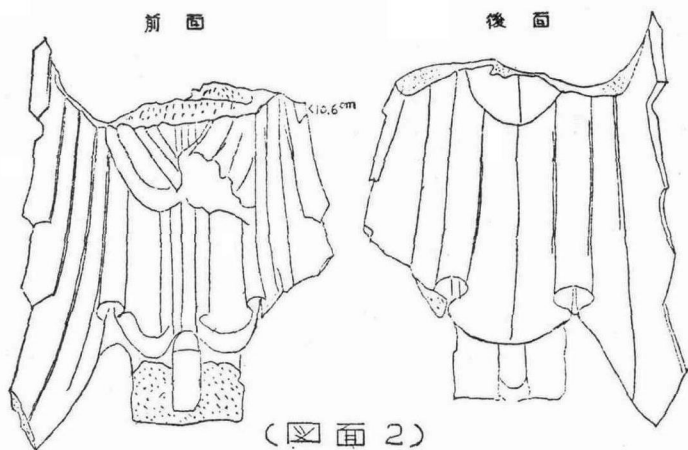
(4) 滑石菩薩立像(圖面2)片……日 帝末期의 所謂 神宮造營工事に 따라서 實施된 遺蹟調査에서

扶餘錦城山 朝王寺西南麗(推定 天 王寺址)에서 藤澤一夫氏에 의하여 收拾된 것인데 此種 石像中 가장 巨 軀의 優品이라고 할 수 있다. 腹部 以下の 白色의 斷片인 바 刀法이 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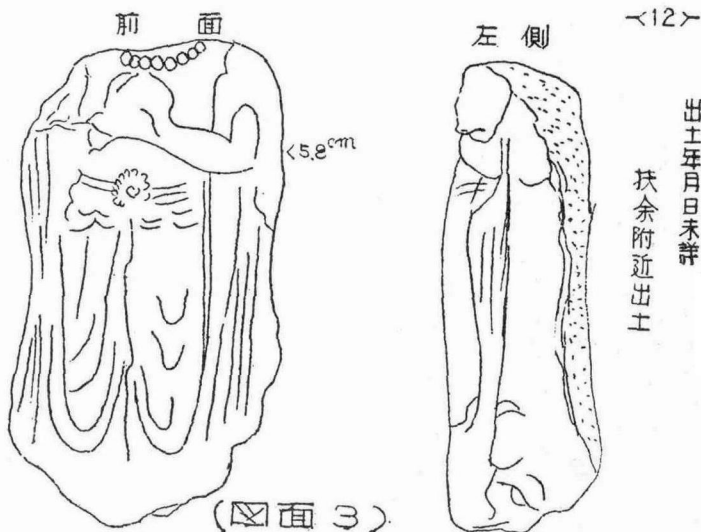


(圖面 1)

1947. 12.9 扶餘邑舊衙里遞局址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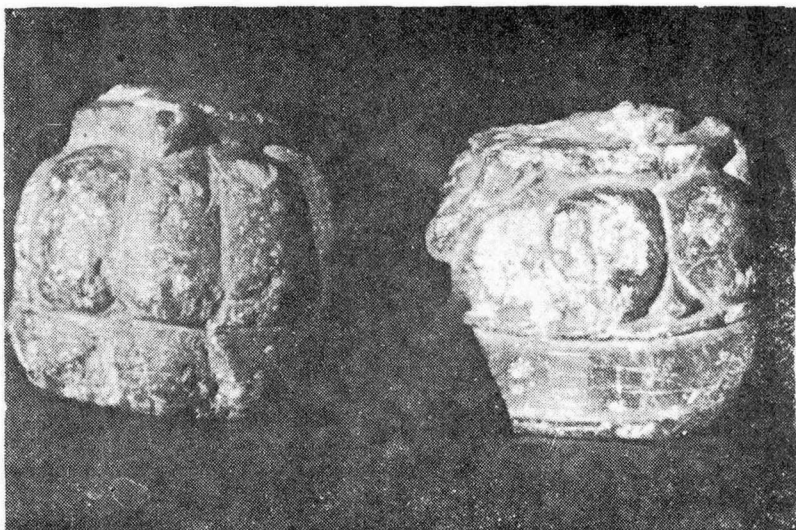


(圖面 2)



(圖面 3)

出土年月日未詳
扶余附近出土



直하고 衣文의 樣式이 古式을 따라서 天衣는 身側을 따라 鱗形으로 展開
하였고 中央에서 X 字로 交叉하였으며 裙衣는 垂下되어 下端에서 褶皺
을 새겼는데 左右對稱과 側面이 없는 正面觀의 手法과 平板과 같은 彫法
을 따르고 있다. 背面은 平行縱線으로 衣文을 새겼으며 下端에는 長方
孔이 있음에서 兩足頸이 보이거나 그以下는 缺失되었다. 前號(其二)에서
도言及한바와 같이 表面에 朱色이 鮮明하게 남아있다. 現高一四·四cm
上幅十·六cm (扶博所藏)

(5) 蠟石菩薩立像(圖面 3)片……扶餘附近出土라고 傳할뿐 關係知見을 알
수 없다. 頭部와 身端을 缺하고 現高十·五cm 身幅五·八cm 인데 上記(3)(4)

와는 樣式이 다른 遺品이다. 上裸인데 목에는 珠環이 있고 兩手는 胸前
에서 合쳐졌으며 裳帶中央에는 花文을 새겼다. 天衣는 身側을 따라서 垂
下되었고 裙衣는 兩足을 따라 同弧線을 表示하였는데 刻線은 溫柔하며
寫實의 이어서 (3)(4)等 先行樣式과는 別系의 造形으로서 그 年代는 七世紀
中葉인 統一前後로 推定된다(附)石造臺座 二例(扶餘出土)(寫眞)

(1) 蠟石製 圓形蓮座片으로서 蓮肉上에는 足部의 殘痕이 보이며 伏蓮
紋은 單瓣으로서 圓形 厚肉이며 瓣端이 약간 突起되었으므로 그 밑으로는

線條 一帶로서 下端緣帶와의 間地는 無紋이다. 이 같은 臺座로서는 日本 金銅立佛像에서 同一例를 볼 수 있는 바(小林 前掲書 第三號 釋迦如來立像) 蓮紋上에 衣紋端片이 彫刻되어 있으며 立像의 圓臺座로 推定된다. 高六cm(扶餘高校所藏)

(2) 蠟石製圓形蓮座의 約 $1\frac{1}{3}$ 片으로서 蓮臺上은 元來 方形을 이룬 것으로서 隅角에는 귀꽃形이 裝飾되어 있다. 伏蓮座는 長方形의 單蓮으로서 細線으로서 區劃하였으며 下端은 一段 좁아들어 無紋인데 元來 臺石에 插入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一九六〇年七月二七日 扶餘舊衙里의 扶蘇山麓 鄕校 앞 寺址에서 洪再善君이 拾得한 것으로서(前號의 如來立像片 出土地點) 現高六cm 本稿에 掲載된 圖面은 國立博物館 林泉(其一、二) 朴一薰(其三……3、4、5) 兩氏의 作成한 것으로서 이 곳에 謝意를 表한다(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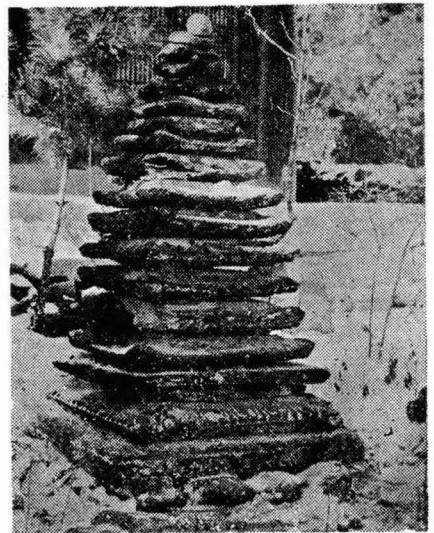
義城郡大谷寺의 靑石塔

崔 成 鳳

昨年 本誌 第二卷 第六號에서 金銅佛을 紹介할 때 言及한 靑石塔을 今 夏에 調査하였으므로 紹介하려 한다. 大谷寺는 現在 一庵(寂照庵)을 가지며 大雄殿、冥府殿、寮舍、梵鐘樓 등으로 卍形의 伽藍配置를 이루고 있으며 塔은 그 中央 庭中에 安置되고 있다.

이 塔은 忠南 牙山 神心寺의 靑石塔과도 같이 塔身 및 相輪部를 缺하였고 方形의 屋蓋는 上下 蓮花臺石上에 累積되었으며 地臺石만은 花崗石으로 一段을 놓았다. 單瓣의 仰覆蓮花를 各各 二十四瓣을 彫刻한 單基壇의 上下石이 中石을 缺하면서 重疊되어 있는點 屋蓋의 手法 등 모두 같은 樣式을 이루고 있다. 屋蓋石은 十二層까지 남아 있으며 實測한 結果 總高一三〇cm(基壇石으로 부터) 下蓮臺石 幅八七cm, 上蓮臺石 七一cm, 第一層 屋蓋石 六五cm, 第十層이 三〇cm이다. 그러나 元來 이 塔을 十三層

新資料로서 既知의 遺品과 더불어 注目할 만하다.



로 推定해 볼 때 現存 第六層이 一邊四五cm이고 第七層이 四·一五cm이니 他屋蓋石間의 比率에 對하여 縣隔한 差異를 나타내므로 本來의 第七層 屋蓋石이 遺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이다. 高麗에 流行한 靑石塔系에 속하는 貴重한

註 ① 本誌第一卷第一號의 鄭明鎬氏發見인 牙山 神心寺의 塔을 參照

「參考」 現存 大谷寺의 遺蹟 및 發掘된 것(建物은 除外)

○ 遺物

- 1, 靑石塔一、2, 八角竿石一、3, 石鍾一、4, 廢塔材(屋蓋一基壇石一)

○ 出土品(鐵佛)

- 1, 金銅佛二(이中一은 今夏 發見된 것으로 未發表)

彥陽 大谷里寺址의 調査

鄭 永 鎬

蔚山市에서 彥陽行며스로 一〇km 地點 泗淵里에서 下車 大谷里行 小路 約六km 步行하면 大谷國民學校이며 다시 峽谷의 溪流를 따라 一二km쯤 올라가면 彥陽面 大谷里 盤龜臺인데 俗稱 圓隱臺(註라고도 한다. 이곳 언덕